

CRAiLAR 아마 섬유를 이용한 혼방사 개발

NAT(Naturally Advanced Technologies)사와 Tuscarora사는 새로운 CRAiLAR 아마 섬유 혼방사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Tuscarora사는 CRAiLAR 아마 섬유 혼방사를 제조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NAT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직업체인 Tuscarora사를 통해 고급여성복, 스포츠 기능성 의류, 극한 기후 의류, 가구용 섬유 등과 같은 미개척 분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NAT사는 Tuscarora사와의 계약을 통해 면혼방을 시작으로 CRAiLAR 아마 섬유의 제품 응용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천연 섬유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NAT사가 캐나다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와 함께 개발한 아마 섬유의 효소 가공인 CRAiLAR는 아마, 대마, 황마, 케나프(양마) 등의 인피섬유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공방법으로, 내구성 및 환경친화성이 있으며, 기존의 방직 및 제직 기술을 통해 의류, 신발, 작업복 및 실내용 섬유 제품 등에 적용할 수 있다.

NAT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CRAiLAR 아마 섬유의 상업화 및 개발을 위해 HanesBrands, Georgia-Pacific, Levi Strauss, Cintas, Carhartt, Ashland, Westex, Brilliant Global Knitwear and Target 등 여러 회사와 계약을 추진해왔다.